

IGE brief+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중국의 재부상과 한국 : 도전과 기회¹⁾

사공 일 |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세계 속의 한국경제 길잡이

IGE www.igenet.com

자료문의 세계경제연구원(IGE)

주소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무역센터 2505호

전화 02-551-3334~7 팩스 02-551-3339

얼마 전에 세계은행은 금년 중에 중국은 구매력 평가(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의 GDP 규모 면에서 미국을 앞지르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동안 많은 연구기관들은 2025년경을 전후하여 중국은 시장환율 기준 GDP도 미국을 앞서게 될 것으로 전망해 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1978년에 덩소핑(Deng Xiaoping) 주석의 개혁·개방 시책이 처음 추진될 때만 해도 세계 속의 중국 경제는 아주 미미한 수준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980년 전 세계 GDP 대비 중국의 비중은 2.3%(PPP 기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0여 년간 중국 경제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해 왔습니다. 특히 2001년 말에 이루어졌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함께 더욱 가속화되었던 중국의 세계화 전략으로 중국 경제는 더욱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3년에 와서 중국은 세계 GDP의 15.8%(PPP 기준)에 달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도약한 13억 인구의 중국 경제는 이제 세계 경제의 향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치

1) 이 글은 2014년 11월 7일 한국일보 창간 60주년 기념 「2014 차이나 포럼」의 기조강연 주요 내용입니다.

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계가 2008년 미국의 Lehman Brothers 파산 이후에 겪었던 소위 Great Recession(대침체)도 중국 경제의 9.2%에 달하는 고성장이 없었다면 더욱 심각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2012년에도 세계 경제 성장의 거의 30%(28.3%)를 중국이 기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경제 규모와 경제력이 크게 성장됨에 따라 국제무대에서 경제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 걸친 중국의 영향력도 확대되어 온 것은 당연한 일이며, 앞으로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대 중국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거대 중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소위 '이웃효과(neighboring effects)'를 최대한 활용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새로운 도전과 부(負)의 이웃효과에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오늘 이 '2014 차이나 포럼'은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온 전문가들과 함께 많은 국내 중국 전문가들이 모였으니 아주 유익한 의견들이 개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전문가 여러분들의 자세한 분야별 토론에 앞서, 좀 더 거시적 차원에서 중국 경제의 과거와 현재 세계 속의 위상을 간략히 짚어봄과 동시에, 현재 한·중 양국뿐 아니라 세계적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몇 가지 주요 이슈에 대해 간략한 코멘트를 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중국과 중국의 저력에 관한 올바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중국은 1970년대 말의 개혁·개방시책을 펼치기 이전 150여 년간을 제외한다면, 지난 2,000여 년간 세계 제일의 경제 대국의 위치를 유지해 왔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한창 진전되고 있던 1820년의 중국 GDP는 당시 세계 GDP의 거의 3분의 1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동·서유럽 여러 나라와 미국의 GDP를 합한 것보다 큰 규모였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역사적 저력과 국민적 자부심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중국 관련 문제를 다룰 때 반드시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30여 년 동안 지속되었던 중국 경제의 도약은 정확히 말해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저력에 의한 중국 경제의 재부상이며, 이것은 어느 순간 갑자기 왔다가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그저 운 좋게 일어난 일시적 현상으로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실제 현재 중국 지도층은 물론이며 대다수 중국인들은 현재 진행 중인 재부상을 중국이 누렸던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과정으로 생각할 뿐 아니라,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일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신념을 기초로 중국인 특유의 전략적 사고와 인내력으로 산적해 있는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앞으로 상당기간 계속 발전해나갈 것으로 보고 이에 우리는 적절히 대응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중국의 재부상에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된 이후, 상당수의 외부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체제적 모순과 기타 많은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중국 경제의 경착륙(hard landing) 혹은 파탄마저 예고해 왔습니다. 최근에 와서도 중국을 “부서지기 쉬운 초강대국(fragile superpower)” 혹은 “부분적 강국(partial power)”으로 지칭하며, 대중국 회의론을 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 중국회의론자들이 지적하는 문제들이 중국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난제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지도층과 정책당국이 이들 회의론자들의 지적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어려운 고비를 거치는 한이 있더라도 이들 문제를 순차적으로 잘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저는 이미 일부 시작된 경제의 구조조정과 성장전략 수정에 따라 앞으로 경제 성장세가 주춤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앞으로 상당기간 내에 경착륙이 발생할 확률을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금년에 중국 경제는 그 동안 중국 정책당국이 금기시 해온 8%보다 낮은 7.5% 내외의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물론 세계 경제의 경기 순환적 요인도 있지만, 중국 정책당국의 성장전략 수정과 일부 구조조정의 시작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미 중국 정책당국은 과거와 같이 밖으로부터 원자재와 부품 등 중간재를 대량 수입하여 조립·가공·생산해서 주로 선진 제국으로 수출하는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성장전략은 이제 한계에 와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소비 증진을 통한 내수 촉진, 그리고 자체 기술개발과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그리고 서비스 산업의 육성 등이 강조되는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들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11-2015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로 2013년 중국의 민간 소비는 GDP의 36%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일인당 소득 수준이 월등히 높지만, 미국의 경우 이 비율은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중국의 서비스 부문은 GDP의 46% 수준이었습니다. 같은 해에 미국의 이 비율은 거의 80%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빠르게 늘어나는 중산층과 가속화될 도시화(urbanization)에 따라 앞으로 중국의 민간소비, 특히 각종 서비스의 소비가 상당히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 소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좀 더 긴 시각에서 본 중국 경제를 전제로 한국의 대응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지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중국 내수시장을 목표로 한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과 함께 현지 생산이 강조되어야 하겠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논의해왔고 또 우리 기업들이 이미 어느 정도 실천해오고 있어 여기서 자세한 논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응방안에 관하여 한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의 심장부에 위치한 것과 같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중국보다 앞서 시장경제 체제의 활용과 세계화 시책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여러 관련 분야에 걸쳐 중국보다 앞선 제도적 인프라(institutional infrastructure)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대한 중국 시장을 겨냥한 외부의 글로벌 기업과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이점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여건만 마련된다면, 우리나라에 중국 시장을 염두에 둔 많은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부 지역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경제특구화’ 하겠다는 차원의 통 큰 정책적 노력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중국의 이웃효과를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마련을 위한 대대적인 규제개혁과 필요한 제도 개선 등의 여건 조성을 하자는 것이지요. 특히 물류, 관광, 금융, 교육과 R&D, 의료·보건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창출과 양질의 취업 유발효과가 높은 서비스 산업의 폭넓은 개혁과 개방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우리 경제의 앞날을 위해 오래 전부터 필요로 해온 것들입니다.

물론 중국 내수시장을 목표로 한 제조업 투자 촉진도 중요합니다. 제조업도 이제부터는 중국 시장에서도 중국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디자인과 패션이 어우러진 명품화와 차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이제부터 우리 기업들은 중국시장에서도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제품의 질과 차별화로 경쟁에 이겨야만 합니다.

다음 주 베이징에서 APEC 정상회담에 이어 이루어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FTA가 성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중 FTA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시책들이 더욱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한·중 FTA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지적되어야 할 것은 한·중 FTA가 그 동안 지연되고 있는 우리 농수산업 부문의 획기적인 구조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중국의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수요를 고려한 유기농 농산물 생산 등 특화된 농수산업이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게 하는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겠습니다.

이러한 정(正)의 이웃효과를 최대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부(負)의 이웃효과를 최소화하는 특별

한 노력도 중요합니다. 특히 초강대국을 이웃한 중소규모의 나라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소위 finlandization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Finlandization이란 것은 강대국을 이웃한 중소규모 국가들이 강대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렛대(leverage)가 없는 상황 하에서 항상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자국의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거대 중국에 이웃한 우리로서는 finlandization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중국은 Henry Kissinger가 최근에도 그의 저서 「World Order」에서도 재차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 지도층이 과거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볼 때, 중국의 주변국들은 finlandization의 위험에 더욱 각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의 중요한 일환으로 우리는 경제의 질적인 면에서 중국을 한발 앞서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울러 여타 주요 주변국가와 균형 있고 유연한 외교력을 발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러한 소프트 파워(soft power)의 지렛대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원칙적으로 개방과 국제협력을 무엇보다 중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050년 중국 경제는 세계 GDP의 22%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물론 이것은 중국회의론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체제적 모순과 각종 구조적 문제들을 적절히 해결한다는 전제 하에서 나온 결론일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그런 전제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중국 경제의 비중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는 데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의 영향력은 국제무대의 각 분야에 걸쳐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아직까지는 미국 중심으로 짜이고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세계 경제 체제와 질서를 중국이 원하는 쪽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점차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 베이징 APEC 정상회담에 앞서 중국은 미국이 지난 몇 년 동안 강력히 추진해온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외면하고 더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FTA(FTAAP) 협상 추진을 들고 나온 것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Pivot to Asia(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의 핵심 중 하나로 추진해온 TPP를 중국은 당초에는 경제적 측면보다는 전략적 차원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중국 정부는 TPP에 대해 좀 더 호의적인 자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당초 시각을 떨쳐버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협상을 마무리하려면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한 FTAAP를 거론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그 동안 미국이 제외된 RCEP(지역경제동반자포괄협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중국은 현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AIIB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기존의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을 의식하고 추진되는 기구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과 Australia 등 우방국의 참여를 적극 만류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여기서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례를 통해 중국이 지향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한 생각을 알고, 우리의 대응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미·중 사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자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TPP 협상 참여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한국은 APEC 차원의 FTAAP 추진에도 적극 동참함과 동시에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미·중 간의 의견 조율에도 적극적인 중간자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우리의 외교 노력은 FTAAP와 TPP 참여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에도 도움이 될 일입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 등 우방국이 AIIB에 참여하려는 것을 막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 권장하고, 나아가 미국도 이에 적극 참여하여 그 기구가 기존의 세계은행이나 ADB와 경쟁(competition)이 아니라 상호보완적(complementary)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미국을 설득하는 한편, AIIB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AIIB가 미국의 참여와 도움 없이 중국이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배타적인 기구(exclusive institution)가 되어서는 국제기구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중국을 설득하는 일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는 중국의 우수한 전문가들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리더십에 관해 한 가지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 지금까지 중국은 국제무대에서 책임 있는 거대 강국의 긍정적인 리더십 발휘에는 소극적인 반면, 자국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일에는 적극적인 거부권(veto power)만을 행사하는 경향을 보여 왔습니다. 그래서 “부분적 강국”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중국의 지도층 스스로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아직도 세계무대에서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 면에서 한계가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G2를 자칭하고 있는 강대국으로서 기존 세계 질서를 보완하기 위한 집단지도(collective leadership) 체제를 통한 그 위상에 걸맞은 긍정적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세계를 크게 실망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차

원에서 중국은 G20의 집단지도력 발휘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중국의 빠른 재부상과 함께 기타 BRICs 국가 등의 급부상으로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면에서는 다극화 세계(multipolar world)라기보다 오히려 무극화 세계(no-polar world) 혹은 G-제로 세계라고까지 특징지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촌 전체 차원의 지속 성장과 번영을 위해 필요한 리더십 발휘가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 결과, 세계가 필요로 하는 글로벌 공공재(public goods), 특히 자유무역과 금융의 안정 등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는 단일지도력이 불가능한 상황 하에서 집단지도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G20도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G20이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중국은 지난 30여 년간 과거 미국의 주도로 창설·운영되어온 소위 GATT (WTO)-Bretton Woods 체제하의 글로벌 공공재(자유무역과 금융안정)를 잘 활용했고 그 결과 오늘의 중국 경제를 일궈낼 수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중국과 우리는 G20과 같은 글로벌 거버넌스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적극 참여해야 할 책무마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느 중국학자가 “국제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지 않는가를 말하는 것에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 가를 말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한 것을 어느 책에 인용된 것을 봤습니다. 아마 머지 않는 장래에 중국은 이러한 방향으로 바뀌게 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세계는 거대 중국이 원하는 것들이 자국이익뿐 아니라 세계 전체의 지속 발전과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이길 기대할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미 깊은 단계에 들어선 지구촌시대(globalized world)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의 거의 반대편에 있는 인구 1,100만의 그리스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인구 80만의 사이프러스의 국내 금융정책을 정책당국은 물론이려니와 조그마한 금융자산을 가진 가정 주부마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시대에 세계 경제대국인 중국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세계경제연구원 후원회 가입안내

IGE

MEMBERSHIP GUIDE

법인 회원

- 1 구좌당 연 1,000만원 (중소기업 연 500만원)
- 연구원 주최 각종 행사에 5인까지 무료 참가 가능
- 연구원 발간 간행물 제공
- 법인회원을 위한 특별 간담회, 세미나 개최 등

개인 회원

- 1 구좌당 연 50만원
- 연구원 주최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
- 연구원 발간 간행물 제공

학생회원 대학(원)생

- 1 구좌당 연 5만원
- 연구원 주최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
- 연구원 발간 간행물 이메일 서비스

※ 모든 후원금은 관련법에 따라 **세금공제** 가능

| **회원가입 문의**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무역센터 2505호



T 02-551-3334~7

F 02-551-3339

E-mail igenet@igenet.com

<http://www.igenet.com>